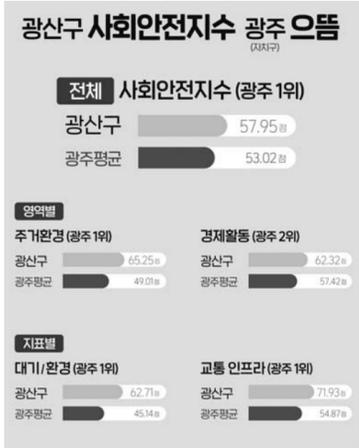


광산구, 사회안전지수 광주·전남 최고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조사 주거환경 영역 전국 8위 차지 안전인프라·복지·미래 지표 높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에서 광주·전남 으뜸 자치구에 이름을 올렸다.

'2021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민의 안전·불안에 영향을 주는 영역을 4개로 분류해 각 영역당 3~4개 지표를 설정하고, 객관적 항목과 주민 체감도 등을 조사해 측정한 값이다. 이번 조사에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온라인 패널 조사기업인 '피엠피아이' 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광산구는 광주·전남 기초 자치단체 중 2021 사회안전지수에서 57.9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광산구는 '주거환경', '경제활동'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주거환경 부분에서 65.25점 받아 전국 8위를 차지했다.

또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광주 평균 57.42점을 상회하는 62.32점을 받아 북구(63.86점)에 이어 광주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했다.

지표별로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한 항목과 점수는 각각 '대기/환경' 62.71점(광주 평균 45.14점), '교통인프라' 71.93점(광주 평균 54.87점) 등이다. 생활안전 영역 '안전인

프라' 지표는 62.07점, 경제활동 영역 '복지' '미래' 지표는 각각 66.36점과 70.86점을 기록해 높은 사회안전지수를 견인했다. 특히 광산구는 주거환경 영역에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인정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산단이 밀집해 있는 환경 탓에 공기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9년 하남산단, 지난해 평동산단 주변 녹지와 공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유치해 2019년부터 182억원 규모의 '지역 주도 시민체감형 실의 공기 질 관제기술 개발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공기 질을 개선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공기산업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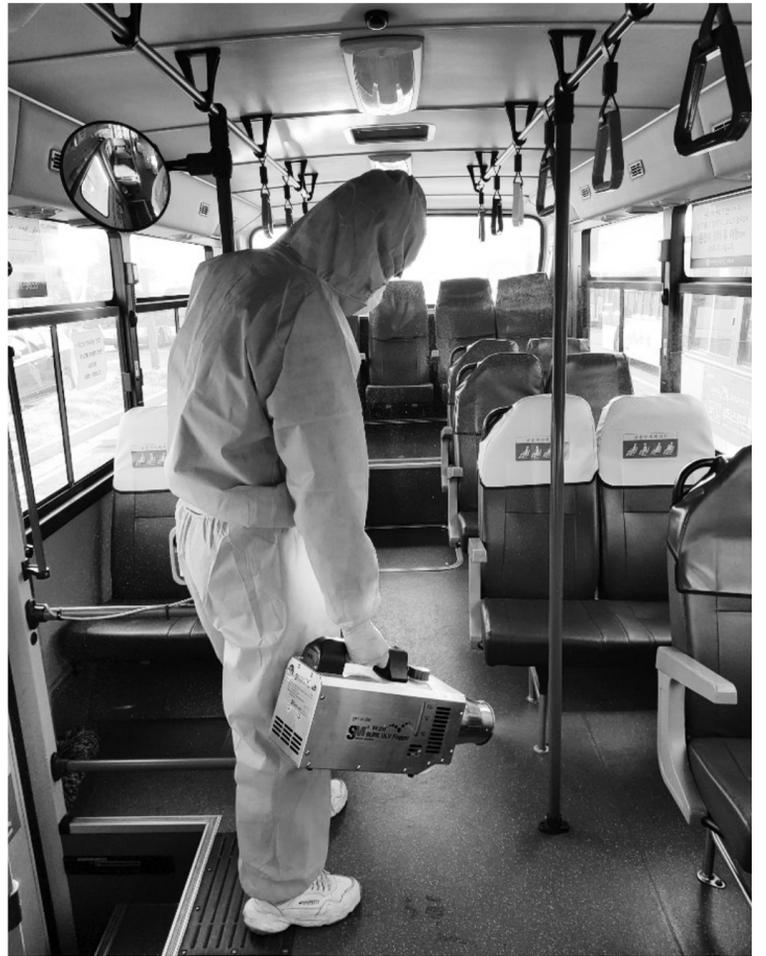
광산구는 이 밖에도 만성적인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장 나눔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 주차장 지원사업', 실시간 주차면 정보제공과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가꿔가고 있다.

광산구는 세부 지표 중 안전인프라와 복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각각 '안전광산프로젝트'와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가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동체 존립의 기초 중 하나로 안전을 꼽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 7기 취임 첫 결재로 '광산안전대진단사업'에 서명하고, 지역사회 안전전반을 살피는 안전광산프로젝트로 시민과 함께 일상 위험요소 660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사회안전지수 성과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안전과 경제를 기본에 놓고 행정력을 집중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 시민행복을 쫓아워낼 수 있도록 정책을 더 고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문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12일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지난해 하루 2차례 이상 불...음식점 가장 많아

화재 882건·인명 피해 32명

지난해 광주지역 화재 발생이 하루 평균 2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의 소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화재 건수는 882건, 하루 평균 2.4건이다. 인명 피해는 32명(사망 4명·부상 28명), 재산 피해는 32억9500만원이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 290건, 차량 89건, 임야 27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500건, 전기적 요인 180건,

기계적 요인 93건, 미상 51건 순이다. 부주의 대부분은 담배꽂초(154건)가 원인이고 음식물 조리(118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 건수는 총 1만7488건(구조 인원 2911명)으로 하루 평균 47.9건(8명)이다.

안전 조치 4153건, 별집 제거 2597건, 동물 포획 2232건, 잠금장치 개방 1698건, 교통 1477건, 승강기 832건 등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난 구조가 384건으로 전년(26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송 건수는 총 5811건으로 이 중 확진자 이송은 1083건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됩니다

2월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

광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2월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0%가 넘는 43만 2500대로, 총 127억5000만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인구 줄어든다

지난해 9월 0.06% 떨어졌다

개발호재 등으로 수년째 인구가 늘어났던 광산구가 지난해 9월부터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소폭이지만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광산구의 인구 감소세는 그동안 인구 50만 거대 자치구를 지향하던 정책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그동안 각종 개발 호재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0.05% 감소했다. 그 후 소폭 상승하다가 9월 0.06%, 10월 0.14%, 11월 0.11%, 12월 0.13% 줄어드는 등 매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광산구 인구가동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이유로 외부 진출이 가장 많고 사망이 뒤를 이었다. 가구당 인구수도 2010년 2.85명에서 현재는 2.44명으로 줄었다. 출생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4000명을 웃돌던 출생률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신생아 숫자가 2340명에 불과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 코로나19 집중 방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수검사 도시철도·시내버스 방역소독

광주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746명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월10일까지 전문방역업체 30명을 투입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소독은 기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대중교통시설방역단이 지난해 12월 종료되고 참여자 선발 절차를 거쳐 2월중 재개함에 따라 1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민간방역업체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영차고지와 회차지에 방역 인력을 상주시켜 운영을 마친 시내버스 차량과 차고지를 대상으로 일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고, LED행선판, 버

스노선표지판, 차량용 스티커 등을 활용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도 계속한다.

또 시내버스 이용객의 마스크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내버스에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시설방역단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체 방역으로 전환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동차는 주 2회, 역사는 일일 1회, 엘리베이터, 개집표기 등 각종 손잡이와 버튼 등 승객 접촉이 많은 부분은 수시로 살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방역업체 방역 위탁을 통해 집중 방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